7월28일 화답송 _연중 제 17주일

Cecillia 曲

시편 138(137),1과 2나.2ㄱ과 3.6-7ㄱ나.7ㄹ-8(◎ 3ㄱ 참조)

주 님, 제 가 부 르 짓 던 날, 당 신 은 응 답 하 셧 나 이 다. Fine

1. 주	님,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	이	다.
2. 당	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, 당신 이름 찬송하나	이	다.
3. 주	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	시	고,
4. 주	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	이	다.

제	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	기	에,
제	가 부 르 짓 던 날, 당신이 응 답 하	시	고,
말	리셔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	이	다.
나	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	리	라!

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	나	이	다.
저를 당당하게 세	우	시	니,
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, 원수들의 분노 막아 저를 살리시	나	이	다.
주님,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	옵	니	다.

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	리	나	이	다.
제 영혼에 힘이 솟	았	나	이	다.
당신은 손을 뻗	치	시	나	이
당신 손수 빛으	신	것	들	저
버리	지	마	소	서.

D.C.